

▶ 소비자

소비자의 전기절약행위와 절약효과에 관한 연구

박 명 희*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이 성 림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부 부교수)

이 은 영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우리나라의 전력사용량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1985년대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9632 GWH 이고 전체 전력사용량의 19.0%에서 20년 후인 2004년에는 48615 GWH로 사용총량에서는 5배가량 증가 했으나 전체 전력사용량의 점유정도는 15.6%로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생활의 질을 추구하는 선진국 형 생활 패턴으로 갈수록 주택용 전기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구의 전기에너지 절약 방법 유형을 분류하고 소비자의 전기 절약행위와 절약효과와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하여 에너지 절약적 사용패턴을 유도하는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000가구를 전력사용량 분포, 지역별 인구분포, 주거형태를 고려하여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1767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AS와 LIMDEP을 사용하여 빈도와 평균, 회귀분석, 요인분석, 다중범위로짓 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절전 방안의 효과 인지와 실천 행동의 유형은 '전기 절약 생활 습관', '절전제품 구입', '전기 사용량 점검'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소비자들은 전기절약 생활습관, 절전제품 구입, 전기 사용량 점검의 순으로 절전 효과가 크다고 평가하였고, 실제 실천하는 정도도 이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셋째, 절전 효과를 인지하는 만큼 그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지만 절전 효과를 높이 평가할수록 절전 행동을 실천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았다.

넷째, 절전 방안에 대한 효과 인지와 실천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가구주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전기사용량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인 가구에서 절전 방안에 대한 효과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실천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이 중학교인 가구에서 절전 방안 효과 인식과 실천이 보다 저조하였다. 소득계층이 중하위층(1-3분위)이 절전 방안 효과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절전 방법을 실천하지 않았다. 4분위 계층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절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전력사용량이 301kW 이상부터 절전 방안에 대한 효과를 높이 평가하지 않으며 절전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주택용 에너지절약의 효과는 개인 소비자가 절전하는 노력에 비해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에너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절약의 유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에너지 절약적 사용패턴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나 누진요금제도나 교차보조제도등의 정책은 에너지 절약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차원에서 새롭게 논의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